

물 속 지도

이 진

정다운 것들 모두 물 속에 살아
호수를 바라보며 거북처럼 엎드리는 마음

보상금 손에 쥐고서
도시로 떠나버린 이웃들에겐
물에 잠긴 논과 밭, 돌담, 초가지붕도
선산 정자나무처럼 환하리

세월 흘러도 늙지 않는 고향
마음 받을 출렁이는 물고랑 벗어나지 못해
호숫가에 차린 노천카페
한낮의 간이의자에서 잠시만 눈을 붙여도
흰하게 물 속 지도가 그려진다

종일 땀별에 온몸 구워낸 개구쟁이들
여기저기 저녁연기 낮게 오르면
동네를 향해 달음박질치던 날들
회상의 지느러미들이 물 속 마을을 한바퀴 돈다
잠들었던 길들이 꿈틀대며
물안개로 다투어 호수 위로 달려 나온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갈대꽃처럼 나부껴도
수몰되지 않는 마음
물 위를 소금쟁이로 걸어 다닌다